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5 팩스 / 512-1225

★ 성탄절 메시지

구유 위에 나신 예수님

이종운 목사

■... 말 구유에 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체계를 제시하시고 그것에 의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가치관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출생지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헬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베들레헬의 한 마굿간이었습니다.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금년 성탄절도 뜻깊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말 구유의 예수님은

겸손함을 묵시적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비어 두시고 사람이 되사 짐승의 집 가운데에서도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곤고한 세상을 오히려 존귀히 여기시고 자신을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야말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의 주님께서서는 우리도 자신의 명예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 자들은 낮은 곳에 내려 놓고 교만

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말 구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백하신 자리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 마침내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자기를 박대한 인생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할 때에 다른 사람의 죄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성탄절이 마음껏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 구유의 주님은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말 구유는 인간들의 눈에 비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자리요 우리들의 구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에 나셨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체계를 제시하시고 그것에 의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가치관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닮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말구유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사랑 없는 겸손도, 용서도, 새로운 가치관도 무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사랑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

우리교회 11개 교회학교 중 연령과 학령에의해 구분된 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오늘 교회학교별로 집회 시간에 졸업식을 갖는다.

송구영신예배

1995년 1월 1일 0시에, 시작 30분 전에 입실을 완료해야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맞이하기 위한 송구영신예배를 1995년 1월 1일 0시에 드린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정각 0시에 시작될 예배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30분 전에는 입실을 완료하여 기도로 준비하도록 한다.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새해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새 날을 맞이하자.

신년예배와 성찬식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 주일(1월 1일) I, II, III부 예배는 신년 예배로 드린다. 1995년도 우리교회 표어처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천국시민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면서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순결서약식

1995년 1월 1일 찬양예배 시

1월 1일 찬양예배 시에 13세 이상 미혼자를 대상으로 순결 서약식을 한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요일 3:3) 결혼 전 순결을 서약하는이 행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약한 이들이 서약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와 많은 후원자들의 격려와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서약식에서는 자신의 서약을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금지환을 선물하는데 35,000원의 반지 금액은 서약자 본인(혹은 부모나 후원자)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회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서약을 원하는 성도는 교회학교의 학급 담임 선생님이나 교구 담당 목사에게 「순결서약자료집」을 받고,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에는 반드시 반지의 크기를 기입해야 한다.

신청자와 신청인의 부모 혹은 후원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31일(토) 오후 10시에 4층예배실에서 있다.

서약식 당일에 신청자와 부모, 후원자들은 4시 20분까지 2층예배실에 모이며 중·고등학생은 교복, 대학생과 청년들은 정장을 하도록 한다.

★ 성탄절이 오면 생각 나는 일

온 몸으로(?) 드린 성탄 축하

노애리 (대학부)

내가 여섯살이고 내 동생인 창훈이가 네살이었던 1978년 12월 24일 날의 일이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저 서아시아의 뜨거운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었다. 철저한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매년 가져왔었다. 여자 아이들은 사우디 남자들이 입는 하얀 옷을 입고서 화장을 하고 머리에 리본으로 장식했고, 남자 아이들은 슝으로 수영을 만들어 붙이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서는 동네의 중심지였던 야외수영장에서 행진을 하곤 했다.

그런데 그날의 행진은 당황함과 약간의 웃음이 뒤섞인 미완성의 헤프닝이 되고 말았다. 내동생 뒤에서 행진을 하던 아이가 실수로 촛불을 동생의 옷에 갖다대었고 불이 붙자 이수라장이 되고 만 것이다. 곧바로 부모님들이 뛰어 나오셨고 다행스럽게도 지퍼가 달린 옷이어서 쉽게 벗겨짐과 동시에 내 동생 창훈이는 ... 수영장 물 속으로 풍덩!

아기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날의 행진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추위가 없는 나라여서 물에 빠져도 춥진 않았지만 성탄절 이브에 많은 축하객들 중에 우리 창훈이와 같이 물 속에까지 뛰어들어 예수님에 대한 큰(?) 축하의 몸짓을 한 사람은 아마도 드물지 않을까? 그 날, 창훈이의 몸에 한 점 자국도 남지 않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아이들의 예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의 보답의 증거인듯!

그 후로는 초 대신 손전등을 사용하게 되었다.

★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

가장 성대한 축제로

이운진 (집사)

성탄절을 경건하게 지내야 함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지구촌 곳곳에서 등불을 준비하고 신앙을 기다리는 처녀의 심정으로 확증된 기쁨을 누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떠올려 본다. 그 기쁨은 결코 상업적이거나 말초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로 승리를 드러내신 데 대한 가슴벅찬 충만한 기쁨인 것이다.

3년 전,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낸 성탄의 감격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11월이 들어 서면 온 동네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는 준비로 술렁이기 시작한다. 12월 첫 날이면 점등이 시작되고 평온한 동리에는 성탄의 기쁨이 퍼져가기 시작한다. 우리 가족들은 눈 내리는 거리를 뛰어 다니는 멍멍이처럼 황홀한 성탄 장식들을 구경하느라 밤잠을 설치곤 했다. 겨우 걸어다닐 수

있을만큼의 길만 남겨놓고 실내의를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친구 집에 초대 받았을 때 2개월 간에 걸쳐 차곡 차곡 준비한 그 마음과 정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초대 받은 70여쌍의 부부들은 소박하지만 가장 화려한 웃으로 입고, 직접 만들거나 기회있을 때마다 하나 하나 알뜰하게 준비해 온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나누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찬양하였다.

연말과 겹쳐 자기 인사치레를 위하여 힘에 겨운 선물로 지쳐 버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지는 않았는지. 사치와 소비 풍조가 만연하면서 저마다 다투어 부요함을 향유하려는 풍조로 일상 생활이 '삶의 축제화'가 된 차체에, 진정으로 축하해야 할 예수님 생신에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쓸쓸한 마음이 들고 적당한 격조의 선물에 명함 하나 없어 지내고 마는 우리네 풍습이 웬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도 '준비하는 기쁨'이 아쉬워서다.

인류 최대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진 날, 가장 성대한 축제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교회학교 졸업식에 붙여

어린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조대영 (초등부 교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목양의 명령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졸업은 한 부분의 끝이며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는 초등부의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반성이 가슴을 울려옴은 어떤 일일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본을 보여야 한다는 교사의 자질론을 되짚지 않더라도 못내 아쉬움만 남는다. 뭔가를 기대하며 바라보던 눈동자들, 그들의 힘찬 찬양소리 말없이 봉사하던 친구, 예배에 늦어 쑥스러워하던 모습. 친구를 전도했다고 기뻐하던 그들속에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던가? 실수와 허물이 가득한 선생님께 순종하며 힘들어하는 선생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안타까워 하는 어린이들 속에서 교사는 친구요 동역자의 모습으로 있게 되기에 더욱 감사하다.

그리스도인 교사의 최종목적은 어린이들을 예수님과 접붙이는 것이라 배웠다. 그들 속에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의 귀한 모습만이 영원히 새겨지게 되어야 함을 기억한다. 새해 다시 주어진 기회에 맡겨진 어린이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도록 하는 이롭고 빛도 없는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한다.

그동안 함께 보낸 은혜로운 시간간들을 뒤로 하고 주일 상급을 사모하며 꽃대를 향해 달려가

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졸업하는 어린이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럽단다.”

♥ 교회학교를 졸업하며

교회 중심의 생활을 더 열심히!

노재균 (초등부)

이해는 나로서는 정말 감사의 한해였다. 처음 6학년이 되어 초등부의 최고참으로서, 더군다나 회장선생으로 내가 뽑혔을땐 기쁘기도 했지만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런지 고민되기도 했었는데 벌써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아쉬움만 남는다. 5월 1일 예배당 이전은 나에게도 교회에 대한 큰 경사였다. 그 후 있었던 여름 수련회는 처음에는 피서대신 이니까 수영이나 실컷 하자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깨달았다. 그리고 비전 2000운동 때, 전도를 하면 교회벤티를 주었는데 나는 정말로 그 벤티를 타고 싶었지만 내가 너무 게을렀던 탓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어떤 분들은 뿌꾸기 시계를 몇개씩이나 받은 분들도 있어서 참으로 부러웠다. 그래서 중등부에 올라가면 꼭 전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런 것도 이루어놓지 못한 채 초등부를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중등부에 올라가서는 꼭 잘해야 하는 생각과 함께 중등부에 올라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면서 후배들 내년도에 교회 중심의 생활로 뜻깊은 한해를 맞이 하라고 축복하고 싶다.

♥ 교회학교 졸업식에 붙여

아쉬움은 남지만

서춘식 (유년부 교사)

지난 3년 여동안 유년부 교사로서 봉사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교사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교역자님들과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협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 총동원전도운동이 22명의 새생명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배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와 골목전도를 헌신적으로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하)하신 하나님 말씀을 긴박한 일로 받으며 충성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유년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초등부

로, 저는 다른 부서의 교사로 아쉬움만 가득 남기며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디 가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교회학교를 졸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

홍 석 현 (중등부)

중등부 3년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초등부에 있었을 때 보다 훨씬 자라난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확신있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어려운 일이 생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를 바른 믿음생활로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 어머니께도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목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적은 아빠를 아직 인도하지 못한것과 모든 친척들을 전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이렇게 중등부를 마치고 나니 좀 서운한 감이 들지만 고등부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일수 있다는 생각에 좀 아쉬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고등부에 올라가서는 중등부에 하지 못했던 많은 역할을 하고 싶고 또한 믿음의 반석도 더욱 굳건히 다질 것입니다.

중등부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 교회학교 졸업식에 붙여

사랑으로 주는 권면

정 세 형 (중등부 교사)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년동안 고입 연합교사를 위해 고생(?)한 중 3학생들에게 먼저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험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구김살없이 지내야 할 여러분이 항상 분주하고 지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하며 주님과과의 교제를 부지런히 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며 그들을 통해 '작은 예수'를 보는 기쁨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부로 진학하여 헤어지는 아쉬움도 있지만 신체가 자라듯 우리 중 3 친구들이 지적로나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지기를 바라며 특별히 두 가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에 열심

을 다하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인간의 힘으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기도)만큼은 꼭 가져야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필요한 만큼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내적인 부요함이 생기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외에 다른 유가 없다고 한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 한해가 가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더 나은 희망찬 새해를 주님안에서 함께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 우리의 사랑도...

♥ 교회학교를 졸업하며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최 욱 (고등부)

선생님께,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러 고등부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 얼떨떨했던 1학년 시절, 제법 안다고 까불었던 2학년때, 훌쩍 지나가 버린 3학년, 그 시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지금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고 싶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선 과거에의 통로를 육체대신 정신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양육시켜 주신 선생님!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셨던 선생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찌 이 사랑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공부한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세상적인 것을 좇았을 때, 선생님은 뒤에서 애통의 기도를 드리셨겠지요. 그러한 기도로 우리는 무사히 또한 어엿이 고등부를 수료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부에 진급하는 우리는 '너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다.'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쉬운 마음 속에 또 다른 희망이 움이 싹터오르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아울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도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만 줄입니다.

최 욱 올림

■ 한 해를 보내며

다락방 보고서

최 영 란 (중곡 다락방장)

유난스럽게도 불행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던 한해. 생각조차도 하고싶지 않은 구십사년.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었습니다. 삼년 전내 가정으로 시작한 우리 중곡 다락방이 이제 열 여섯 가정으로 부흥되었음을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모든 가정이 짝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초신자가 학습과 세례도 받았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다락방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또한 남편과 시어머님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온 가족이 협력하여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짧았을때 마음껏 일하거라"하시며 나이가 먹으니 하고 싶어도 마음뿐 이라고 격려해 주실때 격정이 감사로 변하였습니다.

구십사년도에 협조해 주신 여전도회 회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곡 다락방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다락방장 말에 순종 잘 하기로 하면 일등은 할거예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몇 가정을 교대해가며 심방하고 함께 울어주며 웃어주는 형제 자매님,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 지키지 않으면 큰 일 나는 줄 아는 가정, 문제가 생기면 상담하는 가정, 불치의 병으로 어려워하며 식음까지도 전폐하였던 성도님이 교구 목사님, 장로님의 기도로 건강을 찾은 가정,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기적들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기도가 필요하오니 기도의 동지이신 여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는 해를 맞을 마음에 준비를 해 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충성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시리라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다짐을 합니다.

95년에는 다락방마다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 한 해를 보내며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 찬양

채 수 풍 (대학부)

내게 있어 지난 한해는 대학이라는 미지의 세

계로의 도전과 함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꿈과 낭만의 세계로만 인식했던 땅, 입시격정이 없어지고 승리자가 당당히 들어가는 땅으로만 알려진 땅으로의 도전. 그것은 내게 있어서 상당히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땅을 디디는 순간부터 그러한 기대는 무너졌다.

제일 먼저 부딪쳐지는 것은 대학문화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는 술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선배와의 관계, 그리고 여전히 억누르는 시험은 나의 대학의 이상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첫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끌려다녀야 했던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술잔을 거부함으로써 나 때문에 파괴되는 술잔의 흐름. 그 속에서 때로는 폭력의 위협으로, 때로는 유화적인 각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선배와의 관계라는 미명하에서 유혹은 끊임없이 내게 다가왔다. 그런 중에 믿는다는 친구들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

고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과 자신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너무도 많이 보게 되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외톨이가 되는 것까지도,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솔직히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나는 전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말씀 가운데서 또한 내 입술에서 되뇌어지는 많은 찬양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을 믿게됨으로써 결국은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

신앙의 선배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보살핌 속에서 나의 대학생활 방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고, 내 생활은 어느덧 하나님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처음엔 아무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 선배와, 친구들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그들이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격려를 하고, 내 생활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앞에 오늘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호와여 이렇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시편 18:49).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년동안 <순례자>를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여 알찬 내용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하여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순례자> 편집위원 일동 -

◆ 1995년도 예배위원회

- 지도장송취목사
- 위원장 오정수장로
- 서기 노송성집사 부서기 이계홍집사
- 회계 노송성집사 부회계 한정아집사
- 위원 각부장 및 책임자

담당	부장	음향, 조명	강단	헌금 책임	안내		
					총	남	여
주일 I 부	오광환	김성호, 권오현 권오철	김해영	김혜련	1	김성준, 김희석, 노송성, 홍일성	김선영, 황재현, 이명아, 김해영, 이기숙
					현		
주일 II 부	이계홍	김성호, 권오현 권오철	한명순	김경아	1	김중근, 류중관	최정욱, 한명순, 이명숙, 김혜아
					2	김진환, 김상철, 이종호	김미자, 신기숙, 이순영, 이계옥 한정아, 주임옥
주일 III 부	최광성	김성호, 권오현 권오철	김귀자	최미아	1	김규태 김시환	김귀자, 이안순
					현		
찬양예배	김중근	김성호, 권오현 권오철	한명순		1	김중근, 김시환	김상옥, 이안순, 김수호
수요 I 부	이안순		이안순		1		이안순, 이계옥
수요 II 부	김규태		김경아		1	김규태	이기숙, 김수호

부서	부장	차장	위원
성례부	최난수	방계운, 김은애	최경애, 박순봉, 박순옥, 김명숙, 이민화, 최무순, 이점숙, 박경희, 최영순, 윤문자, 홍재식, 이부자
차량관리부	이관규		박두호, 서창원, 이상근, 이승우, 이인근, 조정식, 한길동, 김용호, 김영구

헌금집계 위원

- 이제원 김일용 성준경 하영수 황정욱 이복규 이호연
- 임옥균 임동균 박춘구 송인권 이성근

◆ 1995년도 전도위원회

- 지도권상석목사
- 위원장 박철훈장로
- 남선교회 임원 각 지회 회장, 부회장

부서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요한	회장 윤세환 부회장 구동철	전의식 정동호	이구연 김동연	홍일성 안인호	곽동희 이강인
베드로	회장 이상호 부회장 허상한	오광환 김성무	백수남 차광만	조정식 이남성	이복규 홍성주
바울	회장 하영수 부회장 나종영	성준경 안창휘	장양일 송의용	권영복 김영준	이변생 노송성
모세	회장 부회장		송만영 이상운		

여전도회 임원 각 지회 회장, 부회장

부서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마리아	회장 김미경 부회장 채영애	문형미 이현주	오규자 김남옥	장명숙 이명신	김선영 허숙
루디아	회장 이해순 부회장 이연숙	유명석 신동기	김영희 김희숙	박태희 채덕희	여현진 정정덕
에스더	회장 이순례 부회장 최무순	정봉금 김운자	이정자 손재경	권순단 김영연	박정원 유영자
한나	회장 부회장	이민자 장애희		이신일 백영희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2. '9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뜻깊게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3. 새로 임명받은 일꾼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신앙과 역전을 허락하시도록
4. 우리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